

베니스서 펼쳐진 '마당: 우리가 되는 곳' 성황리 폐막

광주비엔날레 30주년 아카이브 특별전

(재)광주비엔날레가 창설 30주년을 맞은 역사와 민주·인권·공동체를 포괄한 광주 정신의 가치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렸다.

26일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탈리아 베니스 지아르디노 비안코아트스페이스(Il Giardino Bianco Art Space)에서 개막한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 우리가 되는 곳'이 221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24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전시에는 1만8000여명이 찾아 시각 예술의 '마당' 역할을 수행해 온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가치를 향유했다.

이번 전시는 광주비엔날레에서 축적된 아카이브 자료들과 소장품 등을 선보이며 동시대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비엔날레의 의미를 확장하는 작품들이 공명하면서 지난 30년간 지향해 온 다양성과 포용성을 품고 지속되는 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지난 1995년 제1회 대회 출품작들이 전시됐다. 백남준의 '고인돌(Dolmen)'과 크초(Kcho)의 '잊어버리기 위하여(To Forget)' 두 작품은 광주비엔날레가 시작부터 지향해 온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고인돌'은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광주 공동체를 기리

221일간 1만8000여명 방문 '성과' 동시대 예술현장서 비전 제시 민주·인권·공동체 가치 공유 등 연계 프로그램 통한 네트워크



는 의도로 제작됐고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는 쿠바에서 보트로 탈출했던 난민 공동체의 삶을 은유하는 작품이다.

또한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바 있는 김실비, 김아영, 전소정 세 명의 작가는 영상매체 작품을 통해 출품작들이 형성하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재창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미래지향적인 광주 정신'도 모색하는 공유의 장이 됐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와의 커뮤니케이션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 우리가 되는 곳'이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지난 4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열렸다. '마당: 우리가 되는 곳'은 221일간 1만8000여명이 방문했다. **광주비엔날레 제공**

니티 형성에도 노력했다. 한국 문화와 예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광주비엔날레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인턴십 프로그램은 베니스 소재 카포스카리 대학교와 함께 7월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운영됐다.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슨트 프로그램 및 현지 코디네이터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며 한국 예술과 문화를 깊이 향유했다.

베니스 현지 연계 심화 프로그램 'Draw on your Madang'도 지난 15일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비엔날레의 역사를 제고하고 방향성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연계 프로그램 '마당 다이얼로그'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련돼 현재까지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18일 개막과 함께 베니스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서울, 광주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광주비엔날레의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30주년을 맞아 비엔날레의 본고장 베니스에서 선보인 '마당: 우리가 되는 곳' 전시가 현지에서 호평을 받으며 8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광주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광주비엔날레가 시각 예술을 통해 수행해 온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Lau Lukkarila My name is Lau Lukkarila. Choreographer & Dancer. 저는 라우 루카릴라입니다. 핀란드의 라우 루카릴라(왼쪽)와 이탈리아의 루카 본아모레(오른쪽). **이강하미술관 제공**

'클럽 리에중' 마지막 퍼포먼스 공연

광주비엔날레 오스트리아 파빌리온 30일 오후7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이강하미술관에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오스트리아 파빌리온 '클럽 리에중' 마지막 퍼포먼스가 오는 30일 오후 7시 이강하미술관에서 펼쳐진다.

현대미술 작가인 리즐 라프(Liesl Raff)는 '클럽 리에중'으로 카바레 무대, 독립 연극, 언더그라운드 클럽 등에서 영감을 받은 설치 미술과 퍼포먼스를 결합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9월7일부터 이달까지 네 번의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오는 30일 마지막 퍼포먼스를 앞두고 있다.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다양한 범주의 행위 예술가들은 오스트리아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 현대무용에서 공연 예술, 실험 음악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 장르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개념적이고 실험적인 방

식으로 접근하는 실천 양식을 공유한다. 무대가 어떻게 경계를 넓히고 미묘한 변화를 삽입하며, 기대와 규범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지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루카 본아모레와 핀란드의 라우 루카릴라는 키치(kitsch)와 표현연극, 허구적 믿음에 관한 관심을 공유하는 안무가이자 퍼포먼스 예술가다. 어린 시절 우상에 대한 애정 어린 친밀감을 극적으로 구현한 안무를 완성해 대인관계에 관한 기억과 상상을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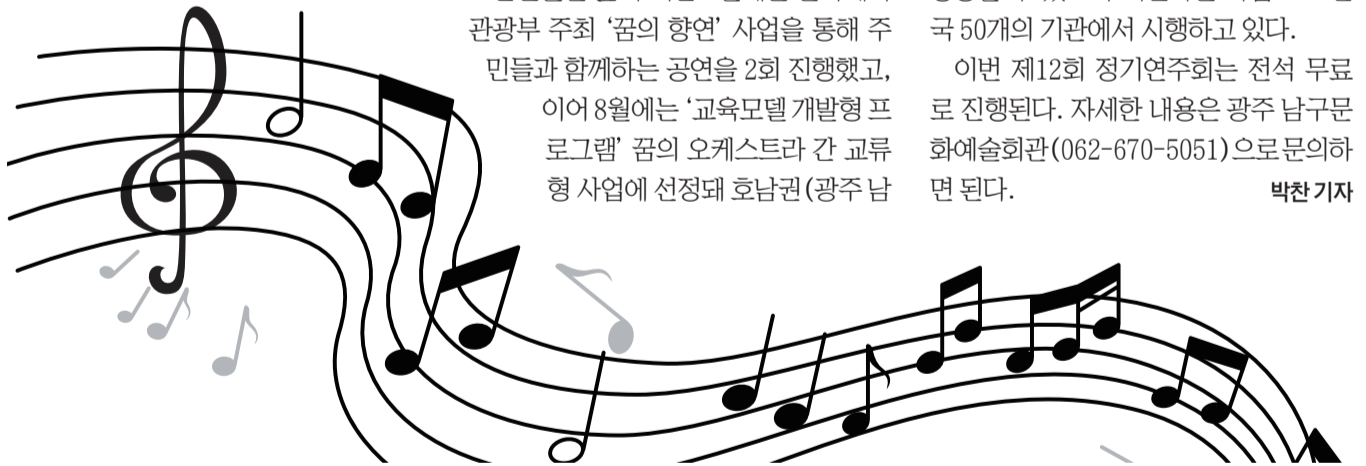
음악가이자 작가인 오스트리아의 카롤리나 프로이슬은 시각 예술가로 사운드 아트와 행위예술을 엮어낸다.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 아날로그 신시사이저와 목소리를 사용한다. 오스트리아 파빌리온 전시장에서 그의 작품인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퍼포먼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강하미술관 학예연구실(062-674-8515)로 하면 된다. **박찬 기자**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제12회 정기연주회

내달 3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꿈꾸는 우리' 밤양갱 등 9곡 선배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은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제12회 정기연주회 '꿈꾸는 우리'를 다음달 3일 오후 7시 광주남구종합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드라마 촬영 명소' 부상

변영주 감독 신작 '사마귀' 촬영 토스카 세트 활용...배경음악 사용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이 드라마 촬영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광주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과 극장 주변에서 내년 7월 중 방영 예정인 SBS 드라마 '사마귀'를 촬영했다.

이 작품은 변영주 감독의 8부작 드라마로 한 여인(고현정)이 오래전에 감옥에 수감된 연쇄살인범으로 그녀를 모방한 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65명의 단원들이 '바다가 보이는 마을', '문어의 꿈', '셀러브레이션', '밤양갱' 등을 비롯해 9곡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원들은 앞서 지난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꿈의 향연'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2회 진행했고, 이어 8월에는 '교육모텔 개발형 프로그램' 꿈의 오케스트라 간 교류형 사업에 선정돼 호남권(광주 남

구, 무안, 전북 고창) 합동캠프 및 합동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편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 문화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이 오케스트라 무상 악기 교육을 통해 '상호학습'과 '협력'을 배우며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50개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12회 정기연주회는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062-670-5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쇄 살인이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프랑스의 동명 드라마를 리메이크했으며 주연 배우로 고현정, 장동윤, 이엘 등이 출연한다.

이번 촬영은 지난 9월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올려진 오페라 '토스카' 공연 현장 촬영 이후 두 번째로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문화예술 콘텐츠가 'K-드라마'의 선택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촬영 현장에는 주연 배우들을 비롯해 '토스카' 공연에 참여했던 소프라노 민숙연, 바리톤 박정민과 조선대학교 K컬처학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단역으로 출연하며 촬영 현장의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촬영팀은 지난 9월 성공리에 끝난 광주시립오페라단의 '토스카' 2막 세트를 드라마 제작에 사용했으며, 오페라 공연 현장에서 녹화된 '별은 빛나건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 주요 아리아를 BGM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립오페라단 관계자는 "드라마 촬영지로 광주의 공연예술과 예술의전당이 또 하나의 광주 주요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